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나 권 수* · 윤 재 근**

대진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인성교육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종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적 가치요소를 대순사상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초월적인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주지하듯이 종교는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념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으며, 비록 그 교리적 근거와 내용은 다르지만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지향한다. 따라서 종교가 인간 본질의 궁극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이해된다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발현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순진리회 종립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면모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 종교 현장 및 학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방안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종교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성교육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타 교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은 수용하거나, 종교 간의 경계를 넘어서 함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인성교육이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이 아니라,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인성교육의 근본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종교에 대한 수요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만약 개종이나 자기종교의 홍보에만 주력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대로 종교적 인성교육의 부정적 요소가 대두될 것이다. 또한 종교적 인성교육이 선교의 수단으로 제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인성교육은 대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사회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핵심주제어: 인성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대순진리회, 인존

* 제1저자: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 교신저자: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I. 논의 : 인성교육의 현주소

2015년 7월 21일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이처럼 하나의 법으로 제정된 데에는 한국 사회의 메말라가는 인성에 대한 우려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여론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법이 처음 제기된 계기는 2012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근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을 목도하면서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며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인성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교육여론조사(2013)¹⁾에서도 확인된다. 이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전체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모두 낮다(전체 72.4%, 학부모 65.7%)고 응답함과 동시에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인성교육을 꼽았다. 2014년의 조사²⁾에서도 인성·도덕성 수준이 낮다(전체 61.3%, 학부모 55.3%)는 항목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다. 즉,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학생의 인성·도덕성의 함양이라는 것에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일면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비판 여론 또한 팽팽한 실정이다.

첫째, 인성교육의 대상으로 학생을 주목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여론이다.³⁾ 인성교육진흥법은 그 입법 동기를 앞서 언급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서 찾고 있다. 이를테면,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근본 예방책을 마련하고,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사전에 교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학교 인성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부재를 해결하자는 접근은 ‘이 시대의 아이들이 문제’라는 시선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인성의 주체가 ‘이 시대의 아이들’이라면 과연 ‘이 시대의 어른들’은 건전한 인격의 소유자들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사회가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먼저

1) 이강주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3), p.38, p.110 참조.

2) 김정민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p.46, p.50, 101-102 참조.

3) 〈인성교육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①〉, 《프레시안》, 2015년 7월 31일자.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둘째, 인성을 법제화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쟁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와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자체 계획을 세워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물론 우리 사회의 무너진 인성을 학교에서부터 회복하자는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면적이고 복잡한 개인의 인성을 획일적으로 함양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상충하고 있다.⁴⁾ 더욱이 이 법을 통해 인성의 가치를 국가가 정해놓고, 특정 가치를 주입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나온 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⁵⁾

셋째, 학교가 오로지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란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시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1항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로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입시로 대표되는 현행 입시 제도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여 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됨은 물론 각 대학의 입학시험에도 인성분야의 면접 비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벌써부터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인성을 매개로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0여 종에 불과했던 인성 관련 자격증이 1년여 만에 213종으로 늘어났으며,⁶⁾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보이게끔 미소·눈빛까지 단시간에 만들어주겠다고 선전하며 나서고 있다.⁷⁾

당초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취지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피폐해져 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현행 입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강행하는 방식의 인성교육이 과연 진정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지는 깊이 성찰해야 하겠다. 사실 인성교육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국가교육정책의 핵심 추진과제로 꾸준한 교육적 관심과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비인도적 현상 또는 각종 사회병리현상 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원인이 학교교육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⁸⁾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된 이상, 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⁹⁾ 이를 현

4)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4), 322-323쪽.

5) 〈인성교육진흥법, 국회의장 인성부터 돌아보라〉, 《오마이뉴스》, 2015년 7월 22일자.

6) 〈자격증·시험 213종에 사설 교육기관 급증, 상품이 되어버린 ‘인성교육’〉, 《경향신문》, 2015년 5월 25일자.

7) 〈착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드려요, 사교육 시장만 부풀린 인성교육진흥법〉, 《주간동아》, 2015년 6월 8일자.

실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일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미 종교교육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된 바 있다.¹⁰⁾ 이들 연구는 인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교양시키고 초월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¹¹⁾ 즉, 인성교육을 위한 모델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종교교육 영역에 도덕과 정서를 포함한 인성교육의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천력 있는 도덕교육의 원천이 될 수 있다¹²⁾는 주장이다. 주지하듯이 종교는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념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으며, 비록 그 교리적 근거와 내용은 다르지만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지향한다. 종교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프레드릭 스트렝(Fredelick Streng)은 종교를 ‘궁극적 변화에의 수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를 인간 본질의 궁극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발현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전망한다.¹³⁾

이미 일부 교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2013년부터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유교

8) 이재호, 「인성의 의미와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열린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서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4), 376쪽.

9) 인성교육진흥법의 맹점에 대해 첫째, 구시대적인 목적과 가치덕목의 추상성, 둘째, 인성교육의 대상을 아이들에 한정, 셋째, 실천적 인성교육 방안의 부족, 넷째, 학교문화 풍토 개선에 대한 대안의 부재, 다섯째,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제 도입으로 인한 전시행정의 가능성, 여섯째, 인성교육의 사교육화 조장 등을 들 수 있다. 심성보, 「인성교육진흥법의 맹점과 대안 모색」,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인성교육방향』 제6회 전북교육정책포럼 (전주: 전북교육정책연구소, 2015), 39-41쪽 참조.

10) 윤재근,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 제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강선보 외,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0집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8); 박균섭, 「유교의 인성교육론」, 『교육사상연구』 제25권 제3호 (부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김수아, 「불교와 인성교육: 필요성과 특성, 그리고 방법」,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19권 제2호 (서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 2013); 김귀성, 「도교적통에서의 인성교육」, 『교육문제연구』 제29집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7); 장화선, 「개혁주의 기독교교육 관점에서의 인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40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4); 조국훈, 「동학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론」, 『동학학보』 제31호 (서울: 동학학회, 2014); 최미숙, 「원불교 유아교육기관의 인성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4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1) 성혜영,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종교계의 과제와 역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불교계의 과제』 제63차 포교정책연구회 자료집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2015), 10쪽.

12) 고병철, 앞의 책, 331-332쪽.

13)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인존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46쪽.

등 7개 교단은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차적인 추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주요 논의 대상인 대순진리회에서는 현재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적 요소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성교육의 시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종단과 학교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면모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현황

1. 대순사상의 인성교육적 함의

인성교육과 관련해 인성의 개념 정의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물음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인성에 대한 명료한 정의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성의 개념처럼 인성교육의 개념도 다양하며, 인성이 교육 또는 지식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도 보인다.¹⁴⁾ 혹은 인성이 교육의 대상이나 목적이 될 수 없기에 인성교육은 성립될 수 없는 용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⁵⁾ 이는 인성이 인간의 내면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이해와 접근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점과 인격, 인성, 성격 등의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규정의 차이 때문이다. 이에 바람직한 인성과 인성교육은 관점이나 가치, 학문적 방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시대적 정황 속에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사실 인성의 의미와 가치는 누군가에 의해 완성되거나 정립되기 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실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정립되는 것일지도 모른다.¹⁶⁾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교육’과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이 법에서의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닦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

14) 고병철, 앞의 책, 323-324쪽 참조.

15) 박선영, 「인격의 구조와 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세상, 1998); 이계학, 『인격교육론』 (서울: 성원사, 1991).

16) 이재호, 앞의 글, 388쪽.

진 조화로운 성품과 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¹⁷⁾

주목할 점은 인성이 교육을 통해 가꾸고 길러질 수 있다는 인지적 접근(cognitive perspectives)을 전제하고 있음이다. 요컨대, 인성이 학습자가 감각적으로 획득한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에 인성을 교육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즉, 인성이 개인의 자질과 품성에 속하지만 교수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교육에 의해 함양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개인의 인성 개발을 통해 ‘타인-공동체-자연’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성교육이 가지는 종교교육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교육에서 의도하는 인간변화도 끊임없이 추구해 나아가면 궁극적 변화의 차원으로 지향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성교육과 종교교육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¹⁹⁾

인성은 개선될 수 있으며, 공동체와의 궁극적 조화를 지향한다는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인성교육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를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존(人尊)’에서 찾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닌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체로 이해한다. 곧 인간 존재의 근원을 천지라는 세계 속에서 해명하고 그 배경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양학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천지에 의한 피동적 객체이면서 천지의 존립에 관여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²⁰⁾ 달리 말하면 천지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실체이지만,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 존재가치가 확보되는 상호 지향적이고 의존적인 실체라는 것이다.²¹⁾ 결국 천지와 인간의 상보적이고도 유기적인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이해는 종교적 인성교육을 통해 내재한 본래 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지적 접근과 무관하지 않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인존은 단순히 ‘인본(人本)’, ‘인권’,

17) 성해영, 앞의 글, 2쪽.

18) 조정호, 「청소년 인성교육의 발전방향 탐색: 인성교육적 함의를 지닌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연구』 제16권 제9호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2009), 255-256쪽 참조.

19)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인존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246쪽.

20)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1장 30절,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예를 들면, 『전경』 교운 1장 30절의 경우 ‘교운 1-30’의 형식으로 그 전거를 밝힌다.

21) 교법 3-47,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일이 마땅히 왕성해지는 것은 천지에 달려있지 반드시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고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지가 사람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전경』의 한문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한 것이다.

‘인간존중’, ‘인간중심’ 등의 개념을 넘어 인간이 자기완성을 통하여 우주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한 인성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며,²²⁾ 이를 우주적 관점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전인적 인간 완성의 구현을 통해 무한한 가치실현의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²³⁾ 이러한 인존사상을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면, 학생을 단순한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지니는 존엄적 가치를 존중하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져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²⁴⁾ 이에 다음 장에서는 대순사상의 인성교육적 이해를 토대로 교육기관과 종단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교육기관에서의 인성교육

1) 산하 고등학교의 인성교육

대순진리회는 1984년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산하 6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종합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간성의 소멸과 정신문화의 상대적 쇠퇴라는 인류 사회의 공통된 고뇌를 참된 인간교육을 통해 해결²⁵⁾하고자 하는 3대 중요사업 중 하나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²⁶⁾ 이에 산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참된 인간교육에 힘쓰라.”²⁷⁾는 유지와 “성·경·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이바지할 것”²⁸⁾이라는 훈시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에 부합될 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주요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이와 관련된 각 학교의 교육목표와 주요정책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22) 교법 3-4,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샧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23) 윤기봉, 「중산의 수행체계에 있어서 성·경의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제2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136쪽.

24) 김영주,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1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32쪽.

25) 대진대학교 20년사 편찬위원회, 『대진대학교 20년사』 (포천: 대진대학교, 2012), 8쪽 ‘학교법인 건학정신’ 참조.

26) 대순진리회에서는 종단의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인간 정신의 구제와 함께 사회와 민생을 구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덕·교화·수도’의 3대 기본사업과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제반 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으로 나누어 종단의 연간 예산을 최대 규모(70%)로 편성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97-99쪽.

27) 『대순지침』, 102쪽.

28) 대진대학교 2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8쪽 ‘학교법인 건학정신’.

〈표 1〉 산하 고등학교 교육목표 및 주요정책

	교육목표	주요정책
대진 고등학교 (1985)	□ 인의(仁義)를 갖춘 참된 인재 육성	◦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대진인(성실인) ◦ 예의 바르고 올바른 대진인(경건인) ◦ 꿈이 있고 믿음직한 대진인(신념인) ◦ 착을 짓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는 대진인(혜원상생)
대진여자 고등학교 (1989)	□ 소통하고 배려할 줄 아는 바른 인성 함양 □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성실인) ◦ 인성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체험활동 활성화 (경건인) ◦ 실력과 희망을 모두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 (신념인) ◦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 (소통인)
분당대진 고등학교 (1994)	□ 실력을 바탕으로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인 □ 겸허하고 예절바른 상생의 덕을 갖춘 경건인 □ 굳은 의지로 자아실현의 능력을 갖춘 신념인 □ 정보화 및 국제 사회에 대응하는 세계인 □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애국인	◦ 혁신적인 고교 교육력 제고 교육 ◦ 수준별 교과교실 수업을 통한 맞춤형 학력 향상 교육 ◦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수학·과학 영재 교육 ◦ 유능한 세계인을 양성하는 맞춤형 유학 교육 ◦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간 교육
일산대진 고등학교 (1995)	□ 능력 있는 창조적 지식인 육성 □ 건강하고 예절바른 생활인 육성 □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긍지 높은 한 국인 육성	◦ 성경신을 갖춘 인재 양성 ◦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감이 강한 민주시민 육성 ◦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지식인 육성
대진디자인 고등학교 (1995)	□ 격동의 시대를 헤치고 나갈 창의적 기술인 □ 사랑과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인 □ 긍지 높은 한국인 양성	◦ 학력 신장 및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강화 ◦ 기본이 바로서는 실천 중심의 올바른 인성교육 ◦ 학생의 적성에 바탕을 둔 진로지도 강화
대진정보통신 고등학교 (1996)	□ 창의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인재 육성	◦ 창의 인성 교육 내실화 ◦ 직업기초능력 및 학력 신장 ◦ 창의적 기술인 양성

<표 1>을 보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의 목표로 추구하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올바른 대진인’, ‘소통하고 배려할 줄 아는 바른 인성 함양’, ‘겸허하고 예의바른 상생의 덕을 갖춘 경건인’, ‘성경신을 갖춘 인재 양성’, ‘사랑과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인’, ‘창의 인성 교육 내실화’ 등이다.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 산하 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이 이미 인성교육과 상당 부분 부합되는 방향

성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산하 고등학교의 인성교육 실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⁹⁾

〈표 2〉 중장기 인성교육 발전계획

구분	영역	주요추진내용	2013년	2014년	2015년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인성교육강화	□ 세분화된 수준별 수업 유형 확대	정착	완성	유지
		□ 상호간의 고운 말 쓰기를 통한 예절교육	완성	유지	유지
		□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및 예절교육	정착	완성	유지
		□ 학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유지	유지	유지
		□ 다양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지	유지	유지

〈표 3〉 2015년 인성교육 추진계획

구분	영역	주요추진내용
2015년 기본 사업	인성에 바탕을 둔 체험활동 활성화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 체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계획 □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 봉사활동 운영 계획 □ 소규모테마별 교육여행 운영 계획 □ 국제 교류 운영 계획 □ 해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여행 안정망 구축 계획
2015년 중점 과제	인성과 진로 적성을 통한 희망 교육	□ 학부모 연수 및 상담주간 계획 □ 진학컨설팅 및 진학 정보 제공 계획 □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 □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 □ 통일교육 운영 계획 □ 정·약·용 프로젝트 운영 계획 □ 자치법정 운영 계획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운영 계획 □ 다문화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 □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통합학급 운영 계획 □ 학생 상담 활동 운영 계획

위의 사례를 통해 산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편익과 효율적이면서도 성취도 높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각 영역의 추진내용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내적으로 각 요소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명료하지 않다. 더욱이 ‘2015년 중점 과제’ 가운데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의 운영방침과 추진계획을 검토해 보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수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교육이 생활화’ 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을 함양한다는 기대효과가 실제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일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

29) 『2015 대진여자고등학교 학교교육계획』 (서울: 대진여자고등학교, 2015) 참조.

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마다 업무계획 속에 인성교육에 대한 목표는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학교 학생 전체가 대상이 아닌 인성함양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교사들의 개별 학습 운영 차원의 인성교육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매해 업무계획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해 추진은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점검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호나 계획은 있으나 실체는 부실한 것이 현재 인성교육의 실태라고 할 수 있다.³⁰⁾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사 4명 중 3명은 올 7월에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71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75.3%(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다 42.0%, 처음 들었다 33.3%)에 이르는 355명의 현장교사들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³¹⁾ 이는 일선 학교의 현장 정서가 입법과정에서 배제되고, 현장 전문가가 아닌 대학교수와 일부 정치인이 주축이 되어 법안을 논의하고 제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실정에 반해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선정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다.

한편, 이 조사 결과에서는 인성교육의 목표 중 배려(28.1%)와 예(24.4%)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존중(15.3%), 책임(9.2%), 소통(8.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으로 가장 많은 교사가 인문학·철학 교육(23.8%)을 꼽았고, 소통과 나눔교육을 각각 11.5%, 협동학습을 11.3%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인성교육과 종교교육의 상보적 관계를 시사해 준다.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되어 온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측면과 접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다.

2) 대학교육 기관의 인성교육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대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여 가치를 창조하고,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이성과 감성에 기반을 둔 학문적 바탕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성격상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인성

30) 현주 외,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3), 4쪽.

31) 〈교사 4명 중 3명 인성교육진흥법 잘 몰라〉, 《파이낸셜뉴스》, 2015년 4월 29일자 티처빌 원격교육연구팀 조사결과.

적 차원의 교양교육과 기능적 차원의 교양교육이 그것이다. 특히 인성적 차원의 교양교육은 종교·문화·제도 등의 제 차원에서 인간사회의 특성과 문제를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³²⁾

대순진리회의 종립학교인 대진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적 차원의 교양 교육을 살펴보면, 우선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대순사상의 이해’를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 해당 교과목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순사상의 이해는 “본교의 건학이념에 비추어 대순사상의 종교적 의미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사회 및 종교문화에 있어 대순사상이 가지는 시사성을 제고하여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교의 설립이념에 대한 이해가 교과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 수강으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이 특정 종교에 노출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대순사상 일변도의 교과진행보다는 종교일반과 타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와 종교문화에 있어 대순사상이 가지는 시사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특정사상이나 분야에 편중된 교육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종교관과 균형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³³⁾

한편, 심화교양으로 ‘인간과 종교, 인권과 NGO, 명상과 마음경영, 마음을 열어주는 철학 이야기, 인터넷 윤리, 아동의 이해, 대학생의 심리건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진대학교의 교육목적인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인 ‘인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4대 중심 전략)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8대 전략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8대 세부 실행계획)에 입각한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교양교육이란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화된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며 학문계열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질적인 내용을 교수하는 교육이다.³⁴⁾ 교양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공교육과는 달리 해당 학생의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 혹은 교양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런

32) 김순자, 「대순진리회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172쪽 참조.

33) 김영주·윤재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70-72쪽 참조.

34) 손동현,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 『인문과학』 제37권 (서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20쪽.

35) 김태영, 「교양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3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73쪽.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교양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윤리·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잡힌 지식의 습득을 통한 건전한 인성을 정립하는 데 인성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인성 관련 교양 교과목

과목명	교과목 개요
인간과 종교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종교에 대한 상호관계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인간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인간과 외계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습득하게 하여 종교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생활세계를 재음미하도록 한다.
인권과 NGO,	본 과목에서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조건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이론들을 학습하게 되며, 현대사회의 특징적 요소인 NGO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학습이 이루어 질 것이다.
명상과 마음경영	삶의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을 다스리는 명상법인 사마타 평정명상과 마음챙김(알아차림) 명상으로 알려진 위빠사나 통찰명상을 교재와 참고서를 중심으로 이론적 기법을 숙지한다. 명상지침서를 통해 직접 자율적 실습과 공신력 있는 명상처에서의 실습을 통해 심신자기치유현상을 체득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지혜를 계발시킨다.
마음을 열어주는 철학 이야기	철학의 특성, 문제, 방법, 분야 등 일반적인 내용을 논구하는 한편, 인생의 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더불어 깊이 있게 논구해 봄으로써 수강생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여러 고민, 고뇌, 내면적 상처 등을 치유하고, 올바른 인생관 및 긍정적 가치관을 정립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구가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인터넷 윤리	현대기술사회에서 사이버공간의 여러 측면을 탐구하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아동의 이해	아동기의 개념, 아동의 특성 및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의 부모 및 교사로써 아동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대학생의 심리건강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특히 행복해지는 방법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만, 교양교과목의 전반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인성적 차원의 교양교육에 비해 기능적 차원의 교양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철학·윤리’, ‘사회·문화’, ‘인성’ 영역 등의 과목 수는 감소하는 한편, ‘실용교양’과 ‘외국어’ 영역 등의 과목 개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취업률을 주요한 평가지표로 대학을 평가함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적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학교육의 내용, 정책, 방향 등은 모두 취업률이라는 명제에 종속되었다. 대진대학교의 교과목 개편 또한 현 체제에서 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 개편은 불

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본질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교육이 취업을 위한 중간재로 전락하지 않고 대학 본연의 고유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종단사업에서의 인성교육

종단사업에서의 인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종교생활의 근간을 만들어주고 종교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대순진리회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캠프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도인 및 도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캠프를 운영해오고 있다. 캠프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를 근간으로 다양한 외부 체험활동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아울러 호연지기 정신을 기쁨으로써 건전한 심성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캠프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캠프를 통해 형성된 종교적 관심과 교리에 대한 이해는 향후 건전한 종교관과 성숙한 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캠프 기간 중에 진행되는 일련의 프로그램은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를 주입식으로 학습시키거나 신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청소년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 신앙 형태를 띠기보다는 부모의 인도에 의해 대순진리회를 신앙하는 2세대들이 그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캠프에 처음 참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순진리회의 교리나 의례 등 종교적 이해도가 빈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교리의 직접적인 교육은 오히려 더 큰 반감과 오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캠프 입소 후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흥미로운 체험과 다채로운 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순진리회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교사의 강의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순진리회를 신앙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돕는 데 힘쓰고 있다.³⁶⁾

청소년캠프는 캠프의 특성상 학습자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고 인성의 개선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앙교육은 그래서 더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에 질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내용의 전달과 학습내용의 유지가 과제라 하겠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교육 현장을 학교에 특정하기 보다는 가정과 사회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나아가 교원의 연수를 통해 그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거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인성교육의 확대를 기획하고

36) 윤재근·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종교교육학연구』 제4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7쪽.

있다. 이는 그간의 인성교육이 공동체와 괴리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대순진리회 인성교육으로서의 청소년 캠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 5〉 여주본부도장 ‘대순청소년 캠프’ 강의 주제

연도	기간	주제	연도	기간	주제
2005	여름	상생	2011	겨울	무자기의 이해와 실천
2006	겨울	해원상생		여름	언덕을 잘 가지라
	여름	해원상생	2012	겨울	언덕을 잘 가지라
2007	겨울	보은상생 - 충, 효, 열		여름	척을 짓지 말라
	여름	언덕을 잘 가지라	2013	겨울	상생
2008	겨울	남을 잘 되게 하라		여름	마음을 속이지 말라
	여름	척을 짓지 말라	2014	겨울	언덕을 잘 가지라
2009	겨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여름	척을 짓지 말라
	여름	마음을 속이지 말라	2015	겨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2010	여름	자신의 꿈		여름	남을 잘 되게 하라
			2016	겨울	상생

인성교육의 핵심은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파악된다.³⁷⁾ 학교 인성교육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교사란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일하는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로써, 가르침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며, 행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행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역할자이다.³⁸⁾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개별적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인성교육의 효과를 의도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캠프의 경우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 학생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 교사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캠프 기간 중 교사진의 경우 대학생 지원자 및 종단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종단에 대한 인식의 폭이 깊지 않은 학생들로서는 교사에 의해 종단의 인상이 각인될 수 있다. 물론 단기 교사들의 참여가 역기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캠프의 특성과 참가자들의 종교적 이해도를 고려할 때 특성화 된 전문 교사 인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캠프에 임하는 교사는 학생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37) 현주 외, 앞의 책, 212쪽.

38) 한국교원교육학회 편, 『교직과 교사』 (서울: 학지사, 2007), 17-19쪽.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사명의식과 전문적인 교수법을 겸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 인력 충원을 위해 캠프에 참여한 단기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을 전문 지도교사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전문적인 교수·학습법을 개발 및 도입하여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다.

Ⅲ. 대순진리회 인성교육의 개선 방안

1.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확장

대순진리회는 타교단에 비해 종교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다소 미비하다고 지적된다.³⁹⁾ 대안교육, 마음공부, 생명윤리, 치유 등을 위한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와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⁰⁾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미 일부 교단에서는 2013년부터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외부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한 별다른 인성교육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운영 중인 캠프만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종단이 추진하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별화된 인성교육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정직, 책임, 존중 등과 같은 가치와 덕목은 실제로 대순진리회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한 교리 내용에 포함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예컨대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을 잘 가지라, 책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남을 잘 되게 하라’와 같은 덕목이 바로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39) 윤재근,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 제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94쪽, 97쪽; 김영주,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1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22쪽; 김승남, 「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2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28쪽, 43쪽.

40) 이는 대순사상만의 독특한 개혁사상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나권수, 「한국 신흥종교의 개혁사상에 관한 고찰」, 『신흥종교연구』 제24집 (서울: 한국신흥종교학회, 2011) 및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제21집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13) 참조.

〈표 6〉 2015년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종교	사업 명칭	내 용
불교	청소년 마음등불(조계종)	집중명상, 명상캠프 등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조계종)	명상수련, 인성교육 등
	호국정신의 계승(진각종)	청소년의 지혜, 감각을 통한 인성찾기 등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프로그램(총지종)	참된 나를 찾는 여행, 한마음 캠프 등
개신교	ABC(Angry Bird Change: 분노조절) 프로젝트	분노의 이해, 분노 감정의 효과적 처리방법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교사, 어린이/청소년의 인성 회복 프로그램
	‘위대한 꿈을 찾는 사람들’ 프로그램 운영	참된 자기 발견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생명·평화의 바람꽃’ 청소년 평화인성교육 운영	청소년 대상 평화인성교육 실시
	‘생명·평화의 바람꽃’ 청소년 평화인성 캠프	고백, 치유, 소통 등 청소년 평화인성캠프
천주교	청소년 사이버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인성교육, 인성 캠페인 운영
	청소년 평화인성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DMZ 평화·역사·생태 체험 캠프 운영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Youth Helping Youth 캠프 및 워크숍, 축제 등
원불교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청소년캠프(따또캠프)	청소년, 지도자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마음공부 心心풀이	청소년 도덕성 회복 및 정체성 확립 등
천도교	청소년 인내천 인성교육	어울림 생활에티켓, 놀이프로그램 통해 생명존중 사상 고취
민족종교	전통문화체험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인성프로그램, 서당 교육, 국악 체험
유교	전통예절 체험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인성프로그램, 전통예절 체험
종교연합 단체 등	종교청년평화학교(ACRP)	동북아 평화교육 및 현장 체험
	종교청년평화캠프(KCRP)	종교청년의 종교, 문화시설 순례 및 강연, 대화토론 등
	세계종교청년평화캠프(URI)	한국종교문화시설 탐방, 분임별 토론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 종교문화캠프(URI)	한국문화이해 강좌, 전통문화 체험 등
	청소년 인성교육을 프로그램 개발	종단 사업담당자 교육, 인성교육사업 평가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분야와 달리 종교의 근본적인 가치와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실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종단 수도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대순진리회의 포교 활동인 포덕(布德)은 도인수를 확장하기 위한 대인 접촉이면서, 대사회적 덕화 선양까지 포괄한다.⁴¹⁾ 그러므로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사회적 공공윤리 확립에 기여하는 포덕의 한 방

41) 『대순지침』, 19-24쪽 참조.

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인성교육이 ‘종교의 교육’이 아니라, ‘종교적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종교는 인성교육의 근본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종교에 대한 수요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만약 개종이나 자기종교의 홍보에만 주력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대로 종교적 인성교육의 부정적 요소가 대두될 것이다. 또한 종교적 인성교육이 선교의 수단으로 제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인성교육은 대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사회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⁴³⁾

이를 위해 일선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교단과의 교류를 통해 개별 종교 전통들이 발전시켜온 기법들을 채용하거나, 종교 간의 경계를 넘어서 함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2.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강화

부모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에 있어 학교보다는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아울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⁴⁴⁾ 대순진리회에서도 전적으로 가정화목을 이룩하고 자녀 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⁴⁵⁾ 이를 위해 교육사업의 범주에 ‘가정교육’을 추가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⁴⁶⁾ 나아가 ‘가정화목’⁴⁷⁾이라는 어젠다는 ‘무도(無道)’라고 하는 윤리도덕의 부재상황을 ‘대순진리’를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발단됨에 따라 ‘가정교육’을 인류사회와 미래에 공헌할 주안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의 맞벌이 형태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절대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이 불균형하며 전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지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여 학교에서의 수업운영은 내용보다는 아동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학습능력의 개인 편차가

42) 성해영, 앞의 글, 14쪽.

43) 윤재근,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99-101쪽 참조.

44) 현주 외, 앞의 책, 107쪽, 215쪽 참조.

45) 『대순지침』, 29-31쪽.

46) 위의 책, 102쪽, “교육사업이란 학교교육·가정교육·사회교육 전반을 말하는 것이니,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

47) 위의 책, 20쪽, “가정화목·사회화합·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이다.”

크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수행하려고 하여 교사들은 학급당 인원수가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도 수업운영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⁴⁸⁾

가정의 환경과 형태의 변화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족과 그 결과 발생하는 문제는 가정 불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로 확장되어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인성교육 부재를 종교단체가 중재하여 부모가 자녀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교단에서는 종교교육을 통한 유아기의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아기에 겪은 모든 경험이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아기 인성교육의 경험은 그 사람 일생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⁴⁹⁾ 따라서 각 교단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표 7〉 원불교유아교육기관의 국내 소재지별 분포 현황⁵⁰⁾

구분	전라도	경상도	서울 경기인천	충청도	제주도	강원도	계
어린이집	56	22	17	12	10	4	121
유치원	4	5	0	3	0	0	12
합계	60	27	17	15	10	4	133

원불교의 사례를 보면, 국내 소재지별 유아교육기관은 어린이집 121개, 유치원 12개로 전국에 총 133개가 분포되어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수법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유아인성교육 개선방안으로 발전시키기도 한다.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순진리회에서도 적극적인 자녀교육이 요청된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단계로까지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타 사업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과 유아 인성교육의 도입은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다. 하지만 학교 내의 자원만으로는 실질적 인성교육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순진리회의 종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대순진리회에는 종교 집회시설로 전국 각지에 120여개의 회관과 200여개의 회실 및 2000여개의 포덕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국한된

48) 조연순, 「인성교육: 변화하는 아동 특성을 고려하는가?」, 『교육정책포럼』 183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9쪽.

49) 최미숙, 「원불교 유아교육기관의 인성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44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46쪽.

50) 위의 글, 54쪽.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숙고할 현안이 도인 자녀의 신앙 계승 문제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본회의 종지와 도현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자를 도인”이라고 한다.⁵¹⁾ 이러한 도인을 1세대라고 한다면, 이들의 자녀, 이른바 도인 자녀를 2세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종단의 역사가 누적되고, 그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도인의 자녀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를 주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도인 자녀들로서는 부모의 종교생활을 쉽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앙 계승의 문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리라고 전망한다.

대체로 종교의 미래는 그 종교전통의 이념을 전승해 나갈 신앙인에게 달려 있음은 자명하다. 특히 해당 종교의 미래를 선도할 젊은 세대의 육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한국 신종교들이 과거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가 정체의 늪에 빠지게 된 주요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신앙 계승의 문제는 조선조 후기에 태동한 한국 신종교의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대순진리회에 있어 포덕은 신앙 대상의 덕화를 선양하고 종교적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종교행동이다. 하지만, 도인들의 재교육을 강화하고 도인 자녀의 관심을 증대시켜 종단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 또한 포덕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기관의 활성화는 인성교육의 진흥과 함께 종단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3. 인성교육의 보편적 체제 구축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의 미성숙만을 문제 삼을 뿐 어른의 미성숙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핵심 가치·덕목’으로 학생들에게 예와 효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아이들(children)’은 ‘애들(pupil)’로 간주되었다. 이는 애들을 어른에게 종속된 사회적 관계로서 ‘미성숙한(immature)’ 존재임을 전제하여 어른의 환경을 아이의 표준으로 삼게 한다.⁵²⁾ 하지만 어른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인성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동의 인성을 바르게 하려면 학생을 순치의 대상에서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인성교육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어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를 포

51) 『도현』, 제1장 총직, 제7조.

52) 심정보, 앞의 글, 39쪽.

함해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대한 장기적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교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요컨대 종교는 청소년을 포함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적합한 통로라 하겠다.⁵³⁾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 수행은 ‘기도, 수련, 공부’, ‘수강, 연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⁵⁴⁾ 먼저 ‘기도’는 결핍된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회구하는 자기연수의 과정으로 신앙 대상과의 궁극적 합일을 추구한다. 따라서 기도에서는 진실과 정성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한다. 동시에 기도는 단순히 일신상의 복을 기원하기 보다는 종교적 이상사회의 구현에 참여하는 종교행위로서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이타심을 동반한다. ‘수련’은 기도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행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인간 본래의 양심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 훈련이 요구된다. 한편, ‘공부’는 여주본부도장의 ‘시학·시법’과 중국도장에서 시행되는 ‘기도공부’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공부는 기도, 수련과는 달리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종교행동으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⁵⁵⁾ 이런 의미에서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 보다는 더 강한 책임과 자세가 요구된다.⁵⁶⁾

‘수강’은 여주본부도장과 포천수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강의 목적은 대순진리회의 교직자를 재교육하고 그 자질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수강은 원칙적으로 대순진리회 교직자, 이를테면 교무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72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진행한다. ‘연수’는 제주수련도장과 금강산수련도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20명으로 구성되어 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수도인들이 현장 견학을 통한 진리 탐구뿐만 아니라 도인 사이의 화합, 단결 등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⁵⁷⁾

이상에서 간략히 나열한 종교교육 프로그램은 종단 내 교육으로서 도인에게 해당된다. 주로 종교적인 인격의 성숙을 위한 개별적 수도행위와 도인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연수와 수강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기도·수련과 공부, 그리고 수강, 연수 등은 개인의 종교적 인성 함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3) 성해영, 앞의 글, 15쪽.

54)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수행은 근본적으로 신앙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하며, 단순히 일신의 복을 기원하기 보다는 대순진리회에서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세계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55) 『대순지침』, 37쪽,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6)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186-190쪽 참조;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54-159쪽 참조; 윤재근·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7-10쪽 참조.

57)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191-192쪽 참조.

개인의 장에 있어 종교적 가치 체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같은 종교적 성과를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결부하여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인성교육의 지향점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단독법안이라고 한다. 인성교육을 법을 동원해서라도 강제하겠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행 입시 제도를 고수한 채 획일화된 인성교육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진정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인성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를 기점으로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성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해 인성교육진흥법을 살펴보면, 이 법은 인성이 교육을 통해 가꾸고 길러질 수 있다는 인지적 접근을 전제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성 개발을 통해 ‘타인-공동체-자연’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상생’의 이념과 동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성교육이 가지는 종교교육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인성은 개선될 수 있으며, 공동체와의 궁극적 조화를 지향한다는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인성교육과의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과 종단의 주요 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일단을 산하 고등학교의 주요정책과 대진대학교의 교양과정 운영 실태, 청소년캠프 등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순진리회 인성교육의 개선 방안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장,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강화, 인성교육의 보편적 체제 구축 등으로 제안해 보았다.

이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성교육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하여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순진리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교육에 있어 교사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교육학적 공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종교관이나 태도가 종교교육의 현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학교교육의 입장에서 인성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를 연계한다면 교양교과로서의 종교 교육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종교의 교리교육이 중심이 되거나

학교교육 현장을 선교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종교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심성의 계발 요소는 특정종교의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인성함양을 위한 교양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4.
- 김순자, 「대순진리회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김승남, 「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2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김영주,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1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_____,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김영주 · 윤재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김정민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 김태영, 「교양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3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나권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사에 관한 고찰」 『신종교연구』 제24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1).
- _____,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제21집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13).
- 박선영, 「인격의 구조와 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세상. 1998.
- 성해영,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종교계의 과제와 역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불교계의 과제』 제63차 포교정책연찬회 자료집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2015).
- 손동현,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 『인문과학』 제37권 (서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 윤기봉,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서 성·경의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제2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_____,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인존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_____,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 제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윤재근 · 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종교교육학연구』

- 제4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이강주 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3.
- 이계학, 『인격교육론』. 서울: 성원사. 1991.
- 이재호, 「인성의 의미와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열린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서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4).
- 조연순, 「인성교육: 변화하는 아동 특성을 고려하는가?」 『교육정책포럼』 183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 조정호, 「청소년 인성교육의 발전방향 탐색: 인성교육적 함의를 지닌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연구』 제16권 제9호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2009).
- 최미숙, 「원불교 유아교육기관의 인성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44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현 주 외,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3.

원고접수일: 2015년 11월 18일 심사일: 2015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9일

연구자소개: 윤재근

-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종교와 인격」,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증산의 유교비판과 수용」
- ④ E-mail: jkyouun@daejin.ac.kr

연구자소개: 나권수

- ① 전공: 한국신종교, 대순사상 / 소속: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대순사상, 종교교육
 - ③ 주요논저: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에 관한 고찰」, 「대순진리회의 정신개벽론 연구」, 「한국 신종교의 선도사상 연구」,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 ④ E-mail: luozi@daejin.ac.kr
-

Abstract

Method to invigorate personality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Na, KwonSoo · Youn, JaeKeun

Daeji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se religious education's properties which contains values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in terms of Daesoon Thought, Religious education's aim is to change people for the better, and this aligns with personality education's aim. As mentioned above, religion contains features and ideas that tries to change people for the better, and even though the root of religion may differ, they all aims to achieve ethics of human beings. Thus if religion was to be comprehended as a method to change people for the better, this will also mean religion can be a potential method to make 'healthy and right people'.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ill analyse personality education in fields of Daesoon religious school, and will try to draw out efficient ways to invigorate personality education in terms of religious educ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achieve the 'true goal' of each and every religion, various methods of personality education must be put together and be developed. To do this,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religion should be expanded, current projects which have potential values should be embraced, and lastly the borderline between religions should not hinder the collaborative works between different religions in order to develop more efficient personality education.

However personality education in correlation with 'religious education' should not become 'education of religion'. Religion can be seen as a way to achieve personality education's main goal, and this should not be seen as demands for religion. If one only aims to convert people and promote their own religion, the negative effect of religion will take effect. Also personality education in terms of religion will be limited to just another way to promote religion. So every religion's personality education, including Daesoon, must be conducted within the boundaries of current society's rules, and the

education program must aim to change people for the better.

Key words: Personality education, Education in school, Family education, Daesoonjinrihoi, In-Jon(人尊; the Supreme Man)